

#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 복귀... '베이비 몬스터' 론칭 공식화

## YG 간판 빅뱅 멤버 태양·대성 이적 등 YG 위기 속 등판 4세대 걸그룹 전쟁 참전... "신사옥에서 첫 발표하는 그룹"

K팝 간판 그룹 '블랙핑크'를 보유한 YG엔터테인먼트가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 복귀와 함께 4세대 걸그룹 격전에 뛰어 들었다. YG는 1일 공식 블로그에 'YG 넥스트 무브먼트(NEXT MOVEMENT)' 영상을 게재하며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BABY MONSTER) 론칭을 공식화했다. 특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여성 그룹인 블랙핑크의 후배 그룹으로 눈길을 끈다. 베이비 몬스터는 2020년 이후 데뷔한 걸 그룹들을 통칭하는 4세대 걸그룹에 우선 속한다. 이에 따라 YG도 경쟁이 치열한 4세대 걸그룹 전쟁에 참전했다. 현재 4세대 걸그룹은 SM엔터테인먼트의 에스파를 시작으로 하이브의 르세라핌과 뉴진스, JYP엔터테인먼트의 엔믹스까지 대형 기획사에 속한 팀 위주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브도 있다. YG

가 베이비 몬스터를 데뷔시키면서 대형 기획사들이 모두 4세대 걸그룹을 보유하게 됐다. 특히 이번 베이비 몬스터 론칭은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의 복귀작으로도 관심을 끈다. 양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달 22일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26·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를 했지만 일단 YG 복귀에 명분이 생긴 셈이다. 양 프로듀서는 동생인 양민석 YG 대표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당시 각종 스캔들로 YG가 위기를 맞자 보직에서 동반 사퇴했다. 양 대표는 3년 만인 지난해 7월 1일 대표직에 복귀했다. 양 프로듀서는 몬스터 베이비 론칭 소식과 함께 약 3년6개월 만에 프로듀서로 복귀하게 됐다. 사실 최근 YG는 위기였다. 회사의 간판인 빅뱅 멤버 태양·대성이 회사를 떠났다. 또 소속 그룹 '아이콘' 여섯 명 모두 143엔터테

인먼트로 이적했다. YG 연기자 파트의 간판 배우인 강동원도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월드 투어가 예정돼 있는 블랙핑크는 투어 종료 직후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온 양 프로듀서의 리더십이 YG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사 내부에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인 그룹 론칭에도 추진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베이비 몬스터는 애초 지난해 데뷔 예정이었다. YG는 올해 베이비 몬스터를 통해 변곡점을 만드는 데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개된 베이비 몬스터 론칭 티저 영상에서 양 프로듀서는 트레이드 마크인 모자를 쓴 채 등장했다. 그는 베이비 몬스터에 대해 "YG 유전자를 갖고 있는 베이비이다. 신사옥에서 처음으로 발표하게 되는 그룹"이라고 소개했다. 영상에서는 양 프로듀서뿐 아니라 블랙핑크 제니와 리사, 워너, 악뮤(AKMU) 등 YG 선배 뮤지션들이 베이비 몬스터에 대해 느낀 각자 느낀 소감과 호평을 전했다.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유형의 가수", "사람을 단번에 홀려버리는 것 같다", "지금까지 이렇게



까지 잘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등이라고 반응했다. 특히 블랙핑크 제니는 "전체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같다", 리사는 "7명의 조합이 매우 좋아 보인다"며 직접 안무 지도를 해주는 등 남다른 애정을 선보였다. 대부분 10대 소녀들로 구성된 베이비몬스

터 멤버들은 각각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YG 연습생이 됐다. 지난 4년간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 중에 뽑힌 최종 정예 멤버들이라고 YG는 전했다. YG는 이날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베이비 몬스터 멤버들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 임성재·최혜진 JTBC골프 레슨 방송 출연



미국프로골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월드 스타' 임성재(25) 최혜진(24)이 골프 방송에 출연한다. JTBC골프는 1월 '라이브 레슨 70'에 임성재(17일), 최혜진(18일) 선수가 출연한다고 2일 밝혔다. JTBC골프는 "세계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한국 골프의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출연한 레슨 콘텐츠는 귀할 수밖에 없다"며 "쉽게 볼 수 없는 탑 플레이어들

의 특급 레슨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소개했다. 1월 3주차에는 배용준(24일), 안소현(25일) 선수가 출격해 '라이징스타 특집'을 꾸민다. 2022 시즌 데뷔하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생애 단 한 번뿐인 KPGA 신인상을 거머쥔 배용준 선수와 3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하며 엄청난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골프 아이돌' 안소현 선수가 어떤 팀을 공개할지 기대된다. 마지막 주에는 김민규(31일), 양지호(2월 1일) 선수가 'KPGA 핫스타 특집'을 선보인다. 지난해 KPGA 투어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최고 권위 대회 '코요롱 한국 오픈'을 제패한 김민규 선수와 프로 데뷔 15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팬들에게 감동의 메시지를 전한 양지호 선수가 알짜배기 레슨을 전달할 예정이다. '투어 프로 특집'은 매주 화, 수요일 밤 9시 20분 JTBC GOLF 채널에서 방영된다.

## 송혜교·김은숙, 넷플릭스 '더 글로리' 글로벌 데뷔 일단 성공

### 글로벌 무대에서 좋은 반응 TOP 10 진입



김은숙 작가와 배우 송혜교의 만남으로 관심은 모으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지난해 12월30일 공개되자마자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 1위에 올랐다. '더 글로리'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1위로 출발했으며,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대부

분 나라에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2일 넷플릭스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이날 국내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에서 1위에 올랐다. 전날 '재벌집 막내아들'에 밀려 2위에 머물렀으나 곧바로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더 글로리'는 넷플릭스 공식 집계해 발표하는 주간 시청 시간 순위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태. 이 순위는 현재 지난해 12월19~25일 순위까지만 공개돼 있다. '더 글로리'의 시청 시간은 다음 기간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의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온라인 스트리밍 집계 사이트가 발표한 순위를 보면 '더 글로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플릭스패트롤(FlixPatrol)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지난 1일 TV쇼 부문 순위에서 전체 5위에 올라 있다. 1위는 '웬즈데이', 2위는 '에밀리 인 파리 시즌3', 3위 '아리스 인 보더랜드 시즌2', 4위 '트리즌' 순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대만·태국·베트남 등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일본 2위, 미국 6위 등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대부분 나라에서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여성이 성인이 된 이후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이야기로 그려진다. 송혜교·이도현·임지연·염혜란 등이 출연했다. 이 드라마는 '도깨비' '미스터 션샤인' 등을 만든 김은숙 작가의 새 작품이다. 송혜교와 김작가는 2016년에 방송돼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한 '태양의 후예' 이후 6년만에 다시 만났다.

## 전현무, tvN 예능물 '내친나똥' MC로 합류

방송인 전현무가 '나혼자산다'에 이어 작곡가 겸 프로듀서 코드쿤스트와 신규 예능에서 호흡을 맞춘다. tvN은 예능물 '내친나똥(내 친구들은 나보다 똑똑하다!)'를 론칭한다고 2일 밝혔다. '내친나똥'은 퀴즈 메이트들과 문제해결능력을 겨루는 퀴즈 토크 예능이다. 출연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하며 토크쇼를 펼치고, 함께 집단 지성 퀴즈게임 대결을 진행한다. MC로 전현무가 발탁된 가운데 개그맨 조세호, 코드쿤스트, 이종격투기 선수 김동현이 출연진으로 함께한다. 전현무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게 돼 설렌다. 요즘에 잘 없던 독보적인 콘텐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타 친구들의 면면을 보



는 재미와 스타의 의외의 모습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오는 30일 오후 10시 10분 첫 방송.

## 가수 거미 "데뷔 20주년 원동력? 음악 기다려주는 팬들"

### 광주·부산·수원 등 8개 도시, 2만 명의 관객 만나

가수 거미가 올해 데뷔 20주년을 맞는다. 거미의 데뷔 20주년 전국투어 콘서트 '베오리진(BE ORIGIN)'은 지난해 11월 천안을 시작으로 대구, 울산, 부산, 수원, 광주, 성남, 인천까지 8개 도시로 이어지며 2만 명의 관객들을 만났다. 이어 거미는 오는 2월 4~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전국투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거미는 공연에서 알앤비(R&B), 발라드, 힙합, 락, OST까지 장르 불문 라이브로 관객들을 감동케 했다. 특히 '전국 거미 자랑' 코너에서는 전국의 팬들이 거미의 노래를 부르며 미니 콘서트를 꾸렸다. 관객들의 쟁쟁한 실력에 그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 제 공연 보러오나 봐요"라고 말하기도. 거미는 이번 투어에 대해 "늘 해왔던 콘서트이지만 20주년이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번 전국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 봤는데 '팬분들이 공연장에 오셔서 음악을 들으며 각자

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 하자'고 결심했다. 관객분들이 오히려 따뜻한 눈빛과 환호를 보내줘서 매번 벅차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세트리스트를 구성할 때 대중들에게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는 곡, 많은 분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대표 곡들을 위주로 준비했다. 그리고 발표 년도 순으로 세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추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년 간 거미를 열심히 달리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는 "거미의 음악을 기다려 주고 공감해 준 분들이 가장 큰 원동력이다. 모든 가수들이 그럴 것 같다"고 팬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같이 울고 웃어 준 여러분들 덕에 저의 음악이 멈추지 않고 세월을 따라 흘러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늘 음악으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새해 목표에 대해선 "어느 순간부터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다. 모두가 하



루하루 행복하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음악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지수, 블랙핑크 솔로 마지막 주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지수가 솔로 데뷔를 앞두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지수가 현재 솔로 앨범 녹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바쁜 월드투어를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켓 사진 촬영까지 끝마치고 틈틈이 음악 작업에 매진해 왔다. 곧 좋은 소식을 듣고 찾아 뵈겠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블랙핑크 멤버 제니는 2018년, 로제와 리사는 2021년에 솔로로 데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YG 측은 "지수가 블랙핑크 솔로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 조각 완성을 예고한 것"이라고 전했다.